

이자도 못 갚는 기업·가게 속출...은행 ‘강통대출’ 4조 돌파

5대 은행 무수익여신 지난해 4조원 돌파

기업 무수익여신 전년 대비 5862억원 증가

대출을 내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해 이른바 ‘강통대출’로 분류되는 시중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4조3736억원으로 전년 말(3조5208억원) 대비 8529억원(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수익여신은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못갚는 대출을 의미한다. 90일(3개월) 이상 연체가 이뤄진 대출과 법정관리, 부도업체에 대한 대출로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강통대출’로 불린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조1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7억원(55.5%)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로 인해 농협은행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전년 0.26%에서 0.38%로 확대됐다.

이어 국민은행(9231억원)의 무수익여신이 전년 대비 23.1% 늘어 증가폭이 두 번째로 컸고 우리은행(6246억원)은 전년 대비 18.1%, 하나은행(9909억원)은 전년 대비 1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전년 대비 5.6% 늘어난 6401억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무수익여신 비율도 지난해 0.18%로 전년(0.19%)보다 줄었다.

5대 은행의 기업 무수익여신은 3조411억원으로 전년(2조4549억원)

대비 5862억원(23.8%) 급증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 국내 경기 둔화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미 상호관계 부과 등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경우 대출 부실화 위험도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 무수익여신은 1조2545억원으로 기업에 비해 규모는 적었지만, 1년 전(9959억원)보다 2586억원(26%) 늘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무수익여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대출 부실화 위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경기 불황에 미 관세 조치로 취약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업종별·차주별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외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 산업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기업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 금융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뉴시스

전남도, CES 지원 성과 톡톡 2026년 참가기업 모집

전남도가 최근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 CES를 통해 3322만 달러(약 500억 원) 규모의 실질 수출 성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전남도는 CES 2024와 CES 2025에 총 22개 도내 기업을 참가시켜, 단순 상담이나 MOU 체결을 넘어 실제 수출 계약 및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 CES 참가 지원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는 CES 2024에서 AI 기반 비침습 혈당 측정기 기술을 홍콩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총 30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다. 첫 납품은 오는 5월로 예정됐다.

CES 2025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 ㈜뉴작이 메타버스 및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CES 혁신상 2관왕에 올랐다. 수상작 ‘X-Runner’는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없이 몰입형 확장현실(XR)을 체험할 수 있어, 공간 맞춤형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에너지 기업 ㈜비케이에너지는 CES 2024에서 미국 H사와 321만 4000달러의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 수출계약을 했고, CES 2025에서 미국·나이지리아 기업과 총 2800만 달러 수출 MOU를 했다.

회전식 수상 태양광 시스템은 고정식보다 15% 이상 발전 효율이 높은 친환경 기술이다.

㈜테라웨이브는 CES 2025 참가 후 스마트팜 자동화 솔루션을 앞세워 국내외로부터 납품 문의가 이어졌으며, 실제 판매 계약도 이뤄졌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1일까지 CES 2026 참가기업을 모집, 기술력과 혁신성을 기준으로 12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순천농협, 신규조합원 협동조합이념교육 실시

순천농협은 신규조합원 가입자 약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신규조합원 협동조합이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순천농협의 참주인’이라는 주제로 지난 7일 협동조합의 주인 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조합원상 정립 목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장을 역임한 황선화 강사는 “전국최대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만큼 농협사업을 이용할 때 조합원들의 행복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조합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최남휴 조합장은 “협동조합은 주인인 조합원의 생각만큼 발전한다”며 “조합원님들의 목소리에 응답기 기율이 조합원 편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삼성전자, 1분기 호실적...“메모리가 끌고 핸드폰이 밀다”

1분기 영업이익 6.6조...갤럭시S25 등 스마트폰이 ‘견인’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1~3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표를 올렸다.

시스템반도체 사업 부진 속에서도, 중국 소비진작책 ‘이구환신’ 등의 효과로 범용 메모리 출하량이 증가하고, 갤럭시S25 출시 효과로 실적 선방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는 8일 올해 1분기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6조6000억원 수준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잠정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71조9200억원 대비 9.84% 늘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조6100억원 대비 0.15% 감소했다. 지난 7일 기준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3개월 추정치 평균인 4조9613억원)을 1조6000억원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예상 밖 실적 호조는 스마트폰 사업이 견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가에서는 모바일경험(MX) 사업부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4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1월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S25 시리즈가 초기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앞서 주문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디스플레이 등 부품 사업도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장 사업의 호조 지속과 중국의 도전을 받는 TV·가전사업 역시 예상보다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DS(반도체)사업부문의 영업이익도 전년(1조9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메모리 사업 중국 내수 소비진작책인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 정책으로 전방 산업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범용 메모리 일부 제품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관세 부과 전 메

모리 재고 비축 수요가 몰린 점도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는데 보탬이 됐다.

시스템반도체 사업은 전 분기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2조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장 우려보다는 선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돌린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며,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도 반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의 오는 2분기(4~6월)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조879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10조4439억원) 대비 4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올해 1분기 호실적의 배경 중 하나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선수요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을 논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상호 관세 대상에 반도체는 제외됐지만 스마트폰·PC부터 AI 서버 등까지 완제품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른 고객사 주문 감소나 납품가 인하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

/뉴시스

광주교통공사, 지하철 유모차 무료대여

문화전당역·금남로4가역 등 5개 역사 시범사업



광주교통공사는 지하철 역사에서 유모차 무료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영유아 동반 고객 이용률

여수광양항만공사, 자회사 운영실태 ‘4년 연속 최고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YGPA)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며 4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운영하는 9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모기관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다.

YGPA는 단일통합계약 체결, 모·자회사 소통협의체 운영, 자회사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광양=조순의 기자

2025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 ‘개막’

11일까지 5일간 38개 종목 316명 기술 경연

전남을 대표하는 숙련기술인의 축제, ‘2025년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가 5일간 38개 종목에서 316명이 참가해 기술 경연을 펼친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도가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난 7일 개막되어 11일까지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담양 등 5개 시군 10개 경기장(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등에서) 진행된다.

참가 종목은 산업융드론제어, 게임개발, 제빵 등 총 38개 직종으로, 직종별 입상자(금·은·동)는 국가 기술자격법에서 정한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9월 20일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자기진작과 기술 수

준 향상, 지역 내 기술·기능개발 촉진을 위해 1966년부터 올해로 60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회 입상자가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취업-후학습’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전남도 대표선수 6명이 출전해 금메달(2), 은메달(2), 동메달(1), 우수상(1) 등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뤄 전남도 기능경기대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선수 개개인이 본인의 재능을 온전히 발휘해 세계로 도약하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수 기능인 발굴, 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해 숙련기술인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순의 기자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1300개사

배송비 60% 이상 할인...풀필먼트 비용 2500만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2025년 온라인수출공통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 물량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물류사와 개별 택배 발송 단가 협상이 어려워 물류비 부담이 크다.

상시 할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적함으로써 EMS(우체국 국제특송) 정상이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 창고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참여 중소기업에게 개방하

고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아마존 FBA, 쇼피 SBS 등) 이용료, 수출 통관 및 신고대행비 등 제반 비용 70% 내외를 기업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30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코니바이에런은 사업 덕분에 연간 EMS 정상이 대비 약 76%의 물류비를 절감했고 해외 풀필먼트 거점 이용료 등 2260만원을 받아 온라인 물류비용 부담을 줄였다. 덕분에 수출액은 2023년 358만 달러에서 1275만 달러로 약 3.6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올해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 물류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매출규모에 따라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단계별 풀필먼트 지원금을 확대 운영한다.

/권형안 기자



철과 빛의 도시인 광양이 고품격 문화도시로 거듭난다. 포스코는 ‘Park1538광양’의 문을 열고, 시민들과 함께 문화와 산업이 숨쉬는 빛의 여정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Park1538’은 4년 전 포항에서 첫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을 포용하는 공간인 ‘Park’과 철의 융용점인 철씨 ‘1538’를 빛어 만든 ‘Park1538’은 철이 다른 무엇으로 탄생하기 직전의 아름다운 순간과 포스코인의 열정을 뜻한다.

광융합산업진흥회, 미국 시장 공략...300만 달러 계약

세계 최대 규모 광통신산업 전시회에 12개사 참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미국 광통신 전시회(OFC 2025)에 공동관을 운영한 결과 총 300만 달러(한화 약 44억원)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OFC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광통신 산업 전시회로 이번 진흥회 공동관에서는 고려오트론(주), 선일텔레콤(주), ㈜화라포토닉스, ㈜유토티닉 등 12개사가 참가했다.

참가 기업들은 현장조립형 광 커넥터, 광케이블 접속합체, 산업용 광모듈, 광스플리터 등 광통신 분야 기

의 우수 제품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와 적극적인 계약 상담을 이끌었다.

고려오트론(주), ㈜화라포토닉스, 엑스빔테크(주) 등 6개사가 3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과 상담한 바이어를 올해 10월에 개최하는 ‘Photonics Korea 2025’에 초청해 상담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



황”이라며 “진흥회는 현장에서 수출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